한빛원전 잦은 가동중단…불안감 커진다

총 119회 자동정지…안전한 수동정지는 36회 불과
가장 위험한 저출력 상태 자동정지도 무려 18회나
전문가 "그만큼 고장 많다는 것"…총체적 점검 시급

한빛(영광) 원전의 갑작스런 가동 중단 현상이 속출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폭발 위험까지 우려되는 원전의 갑작스런 자동 정지가 100차례가 넘는 것으로 드러나 총체적 안전 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21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 1986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한빛원전 1호기를 비롯, 총 6기의 발전기를 보유한 한빛원전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119번의 자동 정지가 발생하면서 갑작스런 가동중단으로 이어졌다. 같은 기간 예정된 정비 기간에 맞춰 운전원이 안전하게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한 경우는 36회에 그친다.

원전을 멈추는 방법 중 가장 위험한 사례로 꼽히는 저출력(20%) 상태의 갑작스런 자동정지만 무려 18차례에 달했다.

원자력 발전은 핵반응 특성상 저출력 상태에서 가동이 중단될 경우 출력이 급상승, '다른 변수'와 결합할 경우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저출력 상태에서의 원전 자동정지는 피해야한다는 게 원자력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저출력 상태에서 원전 가동이 자동정지됐을 경우 ▲외부 전원 차단에 의한 제어봉 작동 불능 ▲붕산수 투입 통제 불가 ▲냉각수 공급 차단 등 다른 변수와 결합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실정이다.

체르노빌 원전도 잦은 저출력 상태의 운전과 저출력 상태의 자동정지가 참사로 이어졌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당시 외부 전원 공급이 끊긴 가운데 핵반응이 계속 이어지면서 참사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자동정지와 관련, 미리 정한 약속에 따라 관련 기기들이 연계적으로 작동해 최종적으로 운전을 정지하게 된다는 식으로 '자동정지'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박사급 원자력 전문가는 "자동정지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장이 많다는 것이고 핵발전 특성상(위험이 큰 만큼) 좀 더 확대해석 하자면 걷잡을 수 없는 큰 사고의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는 증거"라며 "세관이 파손돼 방사능 유출이 소량 발생하거나 다른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더 큰 위험을 피해서 안전하게 수동정지해야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가도 "잦은 자동정지의 원인은 운전원 역량 미달, 운전원 교육 부실, 운전 절차서 오류 정도가 될 것"이라며 "자동정지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해 사고 위험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호기별 자동정지 횟수는 ▲1호기 36회(저출력 상태 자동정지 4회)▲2호기 34회(7회) ▲3호기 15회(1) ▲4호기 16회(5회) ▲5호기 10회▲6호기 8회(1회) 등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민간안전 감시위원회 회의

22일 영광군 영광읍 한빛원전환경 안전 감시센터에서 한빛 3호기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 감시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린 가운데 위원들이 한수원 관계자의 보고를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물바다 주범은 '낙엽'

배수구 막아 광산구 교차로 침수…차량 피해 잇따라

지난 21일 밤 11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롯데마트 첨단점 인근 왕복 6차선 도로 100m 가량이 빗물에 잠겼다. 왼쪽 사진은 배수구 10곳을 막아 침수 피해의 주범으로 꼽힌 낙엽 더미. 〈광주광산소방서 제공〉

낙엽이 도로변 배수구를 막는 바람에 왕복 6차선 도로가 침수돼 일대 주차된 차량 등이 침수 피해를 입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향후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1일 밤 11시 10분께 광주시 소방본부로 다급한 전화가 빗발쳤다.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롯데마트 첨단점 인근 교차로가 '물바다'로 변했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각,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도 "도로가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22건이나 접수됐다. 피해신고는 첨단 1·2동에 집중됐다.

소방본부가 출동해보니 왕복 6차선 도로 100m 가량이 빗물로 가득찬 상태였다. 일부 저지대는 어른 무릎 높이(60cm)까지 차올라 있는 상태였다.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배기구에 물이 들어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 차량 9대도 견인됐다.

침수된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도 멈춰섰다. 위모(56)씨는 "도로에 물이 순식간에 차더니 주행 중인 차량 시동이 갑자기 꺼졌다"며 "차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무릎 위까지 찼다"고 말했다.

이날 밤 10시부터 1시간 가량 내린 강우량은 고작 48㎜.

강수량도 많지 않고 해당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이 아닌데도, 6차선 도로가 100m 가까이 침수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는 게 소방본부측 설명이다.

소방대원들은 일대 도로변에 설치된 10개 배수로를 확인하다 낙엽 더미가 배수구를 막아 '물난리'를 낸 주범인 것으로 파악했다. 도로변 낙엽이 빗물에 밀려와 배수구 빗물받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침수 피해 이후 구청 홈페이지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 예보가 있었음에도 1시간 넘게 차들이 물에 잠기는 지경이 될 때까지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는 항의성 글도 잇따랐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시 U대회 유치활동비 공개될 듯

대법, 광주시장 상고 기각

광주시가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 및 광주시에 대한 신인도 추락 위험 등을 내세워 '비공개'했던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활동지원비가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22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광주시장이 광주고법 판결에 불복, 상고했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과 관련, 2심 결정이 옳다며 '심리 불속행' (審理不續行)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고법 판결이 최종 확정돼 관련 정보가 조만간 공개되게 됐다.

광주고법 제 2 행정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지난 5월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이상석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광주시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광주시에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활동지원비 세부 집행 내역(일자별, 건별)과 증빙 서류 일체(지출결의서 사본, 증빙영수증 사본)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3년 유니버시아드 유치 추진 과정에서 집행한 유치활동지원비 세부 내역은 광주시 예산 집행 내역에 관한 정보로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센인 강제 낙태·단종, 국가 배상 판결

항소심에서도 강제 낙태·단종(斷種·정관 일부를 절제해 생식 능력을 없앰)을 당한 한센인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민사 2부(부장판사 서태환)는 22일 낙태·단종을 당한 강모(78)씨 등 한센인 피해자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은 지난 4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 2부(부장판사 유영근)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국가가 항소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한센인피해자들은 국가 항소에 맞서 항소했었다.

소송을 제기한 한센인 피해자들의 경우 평균 연령이 76세가 넘고 92세의 고령인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가 항소와 관련, 틀에 갇힌 기계적 항소'로 시간을 끌면서 한센인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제기됐었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정당한 법률상 근거 없이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태아 생명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행복 추구권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하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40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었다.

한센 인권 변호단은 이날 항소심 뒤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항소가 잘못이었음을 밝히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면서 "국가는 상고를 포기하고 사죄와 함께 일괄배상하라"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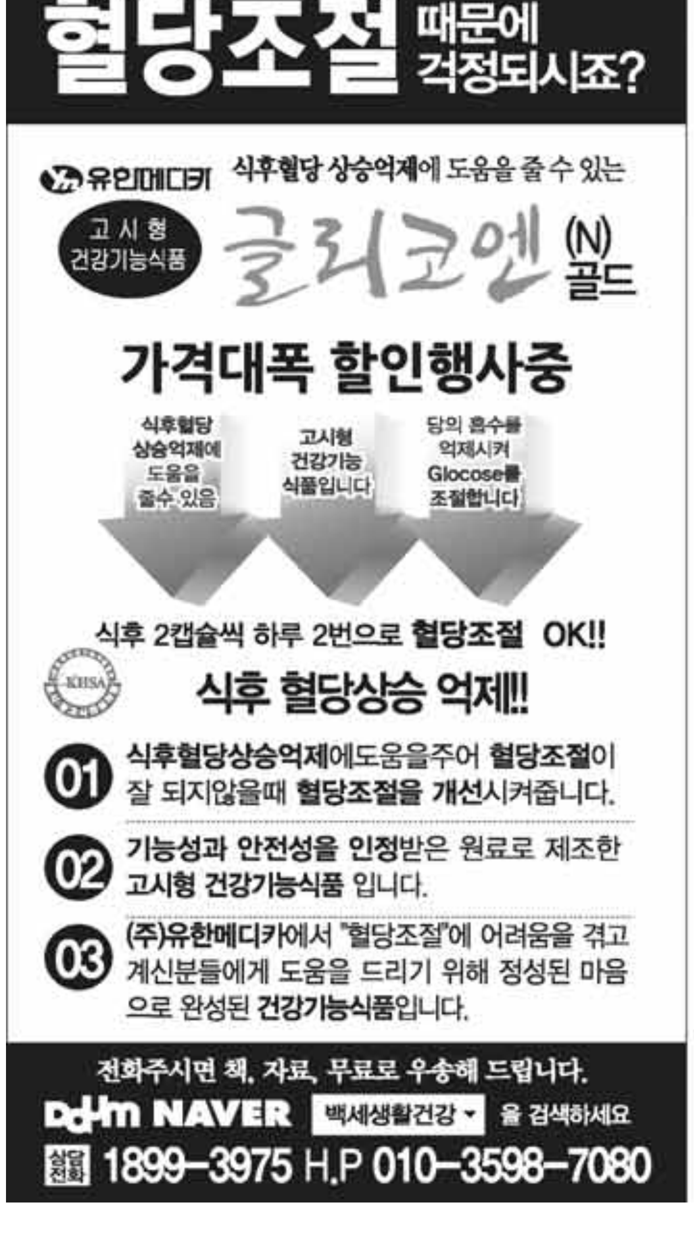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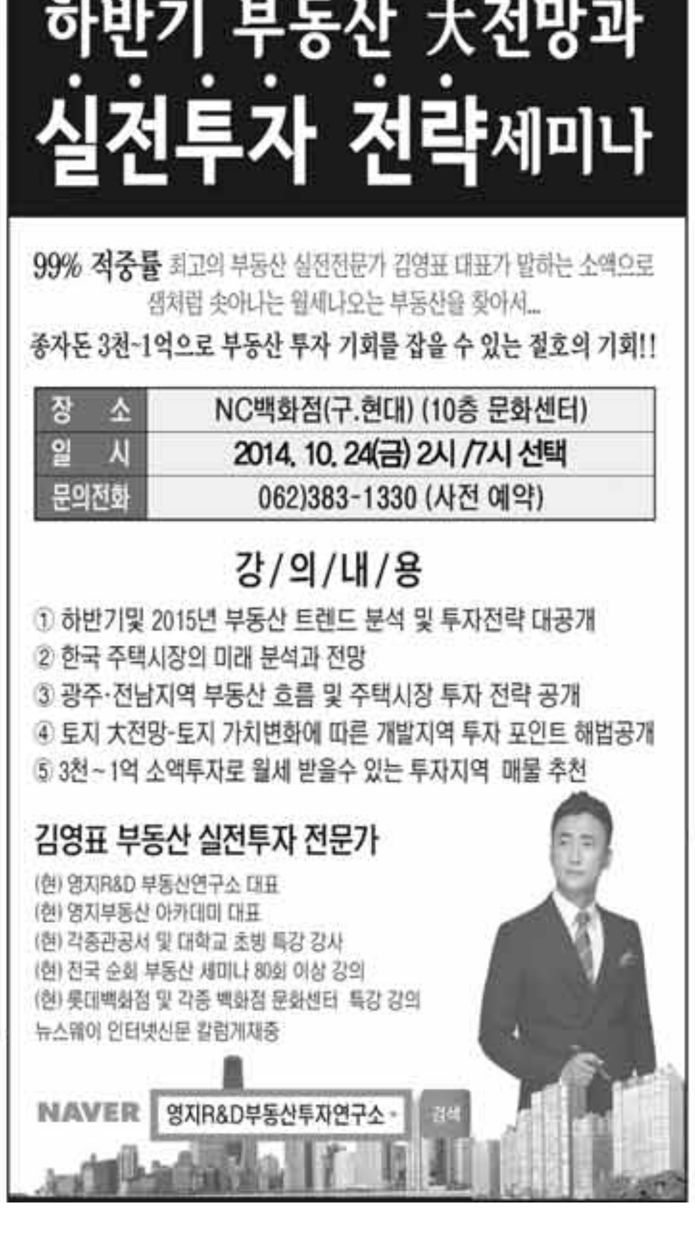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냉동탑차 술김에 운전하다 "어, 내 차 아니네" 버리고 줄행랑

쌍나팔

○…주차장에 세워진 냉동 탑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 술김에 몰고가 근처에 버리고 도망친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22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류모(36)씨는 지난 9월27일 새벽 1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박모(45)씨 소유의 냉동 탑차를 훔친 뒤 300m 떨어진 인근 도로변에 버리고 도망간 혐의.

○…아파트 CCTV에 차량이 찍혀 추적 끝에 붙잡힌 류씨는 경찰에서 "내가 몰던 차랑과 똑같이 생기고 열쇠도 들어있었다.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내 차가 아니라 그냥 버려두고 집에 갔다"고 진술.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